

투데이칼럼

북-러 군사 협력과 한반도 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이로 인한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양국은 정치, 군사 협력, 경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의 대가로 핵무기 고도화,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군사정찰위성, 자폭 드론, 사이버전 기술 등의 군사 기술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사례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북한관 이지스함 인 최현호(배수량 5천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현호는 길이 142m, 폭 22m에 70여 개의 수직발사대를 갖추고 함대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모두 장착할 수 있다. 초음속순환미사일과 위상배열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도 탑재돼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자국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4세대 이상급 첨단 전투기 도입이다.

현재 남북한 공군력은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최신에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국산 전투

기 KF-21은 4.5세대지만 차츰 5세대, 또는 6세대 전투기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최신형으로 평가받는 4세대급 미그-29가 있지만 F-35A와 한 판 붙는다면 게임이 안 된다. 공중전은 작기를 먼저 잡지해 먼 거리에서 격추하는 것이 핵심이다.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와 사거리가 긴 공대공 미사일이 필수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산 첨단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57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상황은 역전된다. 그렇다면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체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관련 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작년 11월 1만 1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 명을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의 대가는 금전적 보상이나 식량, 에너지는 물론 군사 기술이 전일 것이다. 2022년 2월 시작한 러-우크라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결긋러운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빠른 밀착이 가능해졌다.

한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러 간 교류 현황을 기반으로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약 28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이 돈이면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 33년 치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러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한 결국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사시 러시아는 북한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거나 병력 파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24년에 체결된 북러 신조약에서 군사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군사력 균형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북러 밀착 관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러의 군사 협력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선 한국이 외교적 접근을 고도화해 북러 군사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북한 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나섰듯,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도 중요하다. 하지만 냉혹하고 잔인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생존 전략은 자주국방이다. 적보다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이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사설

코스피 3000 추포

코스피가 3000선을 뚫고 3020선까지 치솟았다. 6월 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속 랠리를 펼치며 3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2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4.1포인트(p)(1.48%) 상승한 3021.84로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코스피는 종가 기준 2021년 12월 9일(종가 3029.57)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장중 기준 3000포인트를 넘긴 것은 2022년 1월 3일 이후 처음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물렸다. 외국인은 5619억원, 기관은 38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6021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

스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3일(-0.87%) 하트 빼고 줄곧 상승 마감했다. 12거래일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11.96%에 달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NAVER(035420) 6.94%, LG에너지솔루션(373220) 4.81%, SK하이닉스(000660) 4.47%, HD현대중공업(329180) 2.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1.7%, 현대차(005380) 1.45%, 삼성전자(005980) 0.51%,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0.43%, 삼성전자우(005985) 0.41%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9.02p(1.15%) 상승한 791.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14.6원 내린 1365.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너무 이른 전주 시내버스 막차

전주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이 너무 빨라 이용객들의 어려움이 크다. 일부 시내버스 막차는 제멋대로 운행하기도 한다. 이용객들은 막차 시간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는 교장이나 사고가 아닌 이상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따라 목적지까지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막차 운전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노선을 단축해 운행하거나 승객들에게 중도 하차를 강요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

2021년 12월 말에 개통된 시내버스의 경우 효천교를 통과한다. 간선 노선 중에서는 막차가 제일 이른다.

전 구간 막차가 밤 9시 53분에 출발하고 중간 종착 최종 막차(6001번 객사, 6002번 전북대)는 10시 5분에 출발하여 주요 일반 노선보다도 막차가 빨리 끝난다.

막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대부분 업소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댄 젊은 청년들이 많다. 청년들에게는 아직 출퇴근 교통수단이 시내버스다.

이들에게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퇴근길에 택시를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막차 시간 개선은 물론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한 안전감찰이 필수하다.

한편 전주 시내버스는 완산구의 주거 밀집지역인 효천지구, 삼천동, 효자동, 서신동, 서곡지구와 전주의 원도심 전북대학교, 시청, 객사를 이어준다. 따라서 아침, 저녁 시간대에는 출퇴근, 등하교 수요가 많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 오르반 · 멜로니, 성소수자 혐오하는 명칭이”



24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성소수자(LTGBQ) 단체 시위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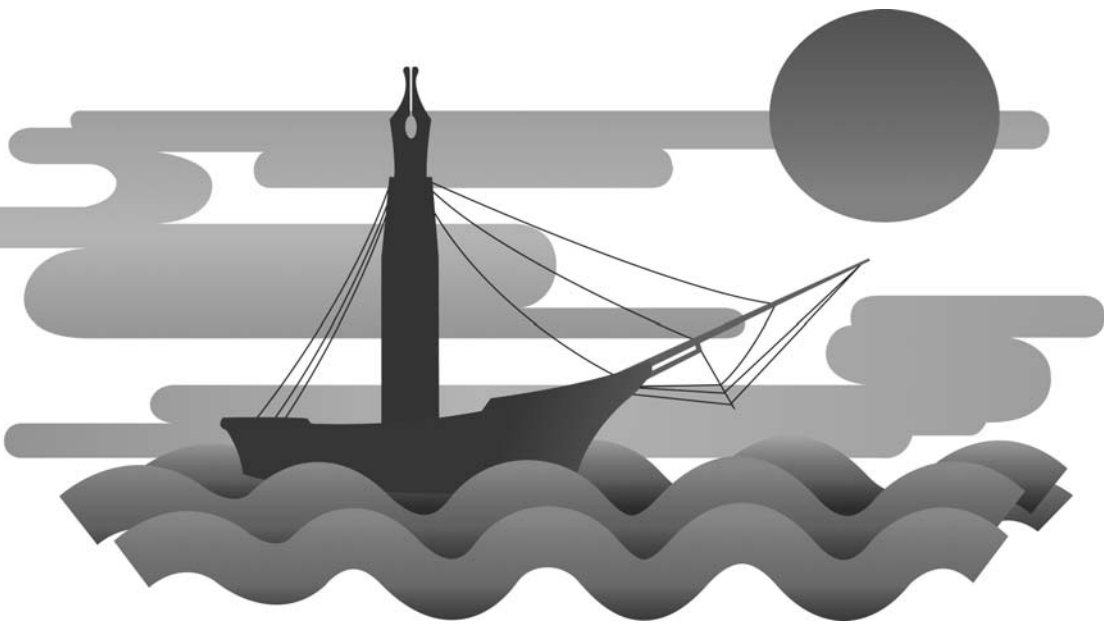
홍수 피해 지역 주민 구조하는 룡장현 구조대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24일(현지 시간) 구이저우성 룡장현에서 구조대가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지속적인 폭우와 산류 지역의 유입수로 구이저우성에서 30년 만에 홍수가 발생해 룡장현에서 4만8900명, 충장현에서 3만2000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두 지역 모두 홍수 통제 비상 대응 수준이 최고 단계인 1급으로 격상됐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